



JARA NEWS

April 2017, No. 110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na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JARA 2017년도 방침 부품 유통을 확대 5부 활동 전인 '차세대회' 설립

JARA 그룹(이마이 유지(今井雄治) 회장)은, 2017년도의 기본 방침으로 '부품 유통 확대'를 내걸었다. 그룹 내 유통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앞으로는 리빌트 부품이나 우량 부품을 포함한 전체 부품의 유통 확대를 그룹 안팎에서 대응하며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 재활용 업계는 사용후 자동차(ELV)의 발생 감소를 필두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동 그룹은 차기도 다섯 개의 부가 중심이 되어 정례회의 운영과 인재 육성 등에 주력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발전과 각 사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 간다.

10일에 개최한 '제3회 JARA 그룹 총회'에서 2017 년도의 사업 방침을 밝혔다. 슬로건은 '플러스 ONE 도전'. 이마이 회장은 "이는 현장에 대한 메시지로 하루 한 대라도 더 생산하여, 수주받는다. 하루 한 건이라도 더 방문한다. 공장 내에서는 한 걸음이라도 이동을 줄이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쌓아 나감으로, 사주와 사원이 하나가 되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는 부품 유통의 확대를 목표로, 블록부가 정례회를 운영, 교육부가 인재 육성, 총무홍보부가 정보 발신, 품질관리부와 신실한 시스템부가 상품 정보를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차세대위원회'를 설립하여, 젊은 세대의 경영자와 차기 경영자 후보들의 육성을 강화한다.

C02 삭감 수치 (JARA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7년2월

2,885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 (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제3회 JARA그룹 총회



블록부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블록 단위의 정례회를 매출 단위로 바꾼다. 같은 규모의 회사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지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회원으로 과제를 공유하며, 개선, 성장을 위한 정례회를 실시한다.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연수에 더해 기술적 직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외부 연수 기관과도 연계해 나가면서 고객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총무홍보부에서는, 전국에서 일제히 청소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한 페이스북도 활용하는 것으로 자동차 재활용 부품의 판매 확대, 계몽 활동을 강화한다.

품질관리부 겸 시스템부에서는, 스캔 툴을 이용한 상품화 전략을 추진한다. 연수회도 실시하여 생산 부품의 부가가치의 향상으로 이어갈 생각이다.

차세대회의 초대 회장에는 타카하시 상회(高橋商会)의 다카하시 겐사쿠(高橋建作) 씨가 취임했다. 2, 3 대째 등 경영자 후보와의 연계를 전국적으로 만들며, 식견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1월 중순에 열리는 전국 합동 정례회의 기획 운영을 맡는다.

◆ 그룹 총회 개최 2016 년도 활동 보고와 2017 년도 예산을 승인

JARA그룹(이마이 유지 회장)은 9일, 도쿄도내 호텔에서 '제3회 JARA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회원 총 75개 사 중 59개 사가 참석했다. 2016년도 활동 보고와 결산 보고, 2017년도 사업 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승인했다.

총회의 서두에서, 이마이 회장은 "지난해는 시스템 개선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개로 플러스 실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는 어려워지기만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JARA 아카데미



서도 고객에게 기여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올해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한다"고 인사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3월 16일)

JARA 아카데미를 개최

최근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中央区))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JARA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장래를 내다본 투자가 가능한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계에서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지식인들의 경험과 경험, 현재의 동향 등을 수강하면서 과제 해결의 논의를 하고 있다.

서두에서, 기타지마 사장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공장이나 경영, 자동차 재활용 사업만으로 좋은 것인지, 또한 재활용 사업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많은 분의 기탄없는 정보를 들으면서 전략을 세워 주셨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올해는 총 6회에 걸쳐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다. 제1회인 이번에는, JARA 회장인 타카하시 상회(高橋商会)의 다카하시 사토시(高橋敏) 사장이 '각 해의 설비 투자 방법'에 대해 강연. 다카하시 사장은 설비 투자에 대해 "어떻게 능률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만들기를 해 나갈 것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아카데미는 이번 달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관리자와 차세대 후계자, 희망하면 직위, 소속 부서를 막론하고 수강할 수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3월 2일)

차세대 자동차의 판매 실적과 2030년 목표

	2016년(실적)	2030년
종래차	65.15%	30 ~ ~50%
차세대 자동차	34.85%	50 ~ ~70%
하이브리드차	30.76%	30 ~ ~40%
전기자동차	0.37%	20 ~ ~3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0.22%	
연료전지차	0.02%	- ~ ~3%
클린디젤차	3.46%	5 ~ ~10%



각 단체의 대응을 공유함으로써, 업계에 존재하는 과제 해결로 이어갈 생각이다

차세대차의 2030년 판매 목표, HV는 벌써 앞당겨 달성

하이브리드 승용차(HV)의 국내 판매가 국가의 2030년 목표를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 신차 판매(승용차)의 최소 30% 이상을 목표로 했지만, 2016년 실적은 30.76%였다. 한편으로 최소 20% 이상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는 모두 1% 미만에 그쳐, 앞으로는 이러한 전동계 친환경차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경제산업성(경산성)은 보조 제도를 새롭게 하여, PHV의 보급에 탄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경산성이 판매 구성비를 산출했다. 하이브리드차는 2015년 실적의 22.2%에서 8% 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2030년 목표의 하한에 도달했다. 2015년 말에 전면 개량한 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를 필두로, 소형차 '시엔타', 혼다의 '피트'의 하이브리드 사양, 닛산의 '노트' 등이 판매를 끌어 올렸다. 클린디젤차는 2015년의 3.6%에서 3.46%로 소폭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감세상의 면세 취급도 2년 연장을 결정하여, 2030년 목표(최소 5%)를 향해 순조롭게 판매 비율이 높아질 것 같다.

한편, EV와 PHV는 2015년보다 0.1% 포인트 가량 상승했지만, 여전히 1% 미만에 머문다. EV는 개량을 거듭하여, 항속 거리가 280km(닛산 리프)까지 연장했으나 차종(車種)이 증가하지 않고, 겨울철에는 실질적 항속 거리가 짧아지는 과제도 있다. PHV는 수입차를 중심으로 차종이 증가했지만, 제품과 주행 특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양판(量販)을 노리는 차종도 적다. 단, 토요타자동차는 "친환경차의 진짜 주인공"(우치야마다 다케시(内山田竹志) 회장)이라고 자리매김하며, '프리우스 PHV'를 시작으로 설정 차종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EV도 양판 모델에서 항속 거리(JC08모드 값) 400km 이상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전동계 친환경차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흐름이 변해가고 있다.



환경차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흐름이 변해가고 있다.

경산성으로서, 보조 제도를 5월부터 변경하는 한편,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에 EV용 급속 충전기를 확대할 방법을 검토하거나, 기업과 출퇴근자 서로에게 이점이 있는 'PHV 직장 충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앞으로도 전동계 친환경차의 보급을 지지할 생각.

(일간 자동차신문 3월 15일)

연재 '제3회 자동차 리사이클·서밋' 곤경에 도전한다 ~ 각 단체의 대응 ~

사용후 자동차의 감소와 매입 가격의 높은 유지, 소재 시장의 침체, 부품 운송 비용의 상승 등, 재활용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는 어떻게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가. 포커스 포인트는 다양하지만, 단체 수장의 발언으로부터는 사업 계속과 확대를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NGP 일본 자동차 재활용 사업 협동조합은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한다. "예를 들면 해외용 공동 컨테이너. 지구 회원이 공동으로 컨테이너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사토 유키오(佐藤幸雄) 이사장) 상황이다. 앞으로는 소재 회수 스킴의 구축을 추진한다고 한다.

소재 관련에서는 동일본 자동차 해체 처리 협동조합이 "도매상과 수량이 관계없이 동일 단가에서의 구매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쓰보 지요시(坪千代志) 대표 이사).

시스템 오토 파트는 "수입차는 증가할 여지가 있다"(도이 히데유키(土居英幸) 사장)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젊은 층의 의식에서부터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의 실정으로, 앞으로는 정보를 공유하여 판매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인재 육성을 강화하는 단체도 있다. 빅웨이브의 핫토리 아쓰시(服部厚司)사장은 "고객 만족 이외에 종업원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는가가 중요해진다. 사원이 만족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토털 카 리사이클 그룹은 "그룹의 존재 의식을 추구하는 한편 협력회와 연계하여 인재 교류를 하고 있다"(이시가미 쓰요시(石上剛) 회장)고 한다. 또한 일본 파트 협회의 하야가와 이치지(早川一之) 회장은 "재활용 업계의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매력 있는 업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테크루스 네트워크(Total Ecology Car Life Service Network)는 시스템 활용을 추진한다. 부품 매출의 확대가 입고 감소에 대한 가장 큰 대응책이므로 "하나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터넷 옥션 등과의 연계도 대처한다"(하리야야 마사유키(針ヶ谷昌之) 사장)는 방침이다.

업무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부유카이(部友会)의 하토무라 쇼지로(鳩村昭二郎) 대표 이사와 JARA의 기타지마 쇼쇼(北島宗尚) 사장. 하토무라 대표 이사는 "제품도 인력도 적다고 하지만, 그전에 작업 흐름을 검토하면 어떨까. 낭비가 많은 부분의 재검토 등에 대해 연구회에서 생각한다"는 의욕을 보였다. 기타지마 사장은 "작업 공수를 줄이는 관점도 중요하다. 시스템의 자동화와 가시화의 추진, 태블릿의 활용 등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ARN(AUTOMOTIVE RECYCLERS NETWORK)이 다루는 것은 비용 삭감. 오카다 다카노리(岡田誉伯)대표 이사는 "이제까지 사의 신제품은 자사에서 포장, 발송해 왔지만, 지금은 운송 회사에 맡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비용 삭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차세대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에스·에스·지이다. 구도 히로시(工藤浩司) 이사는 "전기 자동차와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차량의 부품 확인, 점검 방법 유통 확립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트럭 리파인 부품 협회는 "트럭은 정품, 우량, 리빌트, 중고 부품이라는 단계가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중고 부품의 자리매김을 물류 산업이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미야모토 마사키(宮本眞希) 대표 이사)고 지적한다.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부품 협의회는 타 단체와의 연계를 밀도 있게 해 나간다. "회원의 요망에 응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일본 ELV 리사이클 기구와 더불어 손을 잡고 나아갈"(구리하라 히로유키(栗原裕之) 대표 이사) 방침이다.

일본 ELV 리사이클 기구(ELV 기구)의 사카이 야스오(酒井康雄) 대표 이사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대응과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관점 등 각 사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구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업계 창구의 관점에서 업계 내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메이커와 부품, 소재도 포함하여 큰 틀 안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RUM(ReUseMotorizationAlliance)의 곤도 노리히코(近藤典彦) 대표 이사는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시세가 나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환경 문제의 해결로 바꿔 나가면 새로운 방향성이 보인다"고 강조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2월 16일)

KOBELCO

We Save You Fuel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コベルコが提案する 新しい考え方

マルチ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の解体以外にも廃家電などの金属製機器の解体およびさまざまな複合廃棄物の解体・分別作業が可能です。

自動車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に含まれる素材の分別作業がスピーディーに行えて希少金属資源の回収が可能です。



SK135SRD



SK210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新构想源于神钢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各种复合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素材的分类作业，能够回收稀金属资源。

SK210D



SK210D



成都神钢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新构想源于神钢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进行各种复合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部素材的分类作业，得以回收稀有金属资源。

SK200



SK200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

새로운 발상은 KOBELCO에서

멀티 해체기

용도 폐기된 자동차의 해체 외에도 폐가전제품 등 금속제 기기의 해체 및 다양한 복합 폐기물의 해체·분리작업이 가능합니다.



SK135SR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SK135SR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New ideas come from KOBELCO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vehicle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Car-Dismantling Machine

Car-Dismantling Machine efficiently separates and sorts raw materials in end-of-life vehicles and is able to recover rare earth metals.

SK210D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